

아름다운 작별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68 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췌장암 말기로 수술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떠났다. 그는 미국 한인 이민사 1 백년에서 가장 고위직을 지낸 공직자로 알려지기도 했고, 한인 이민사의 최초 장애자 유학생으로도 유명하다. 또 두 아들을 유명한 안과 의사와 미국 백악관 선임 법률고문으로 훌륭히 키워낸 장한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다. 나는 몇년전 그분의 저서 <빛은 내 가슴에> <우리가 모르지 못할 산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꿈>등을 통해 그분의 살아온 여정과 인생관을 미리 접한 기억이 있다. 나는 그분을 미국 상류층으로 출세한 사람이거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상한 아버지> <이민자의 멘토> <불굴의 의지인>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교회에도 8 년전에 와서 간증한적이 있었듯이, 수많은 간증과 저서와 실천을 통해,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 처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준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다.

그의 성장 배경을 보면 1944 년 경기도 양평군의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다. 13 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 세때 중학교 재학 중에 축구공에 맞아 망막 박리에 의한 두눈을 실명하게 된다. 같은 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졸지에 장애인 소년 가장이 된다. 온갖 시련을 겪다가 서울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대생을 만나게 된다. 당시 숙명여대 재학생이던 두살 연상의 누나는 이 맹아학교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그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의 <하얀 지팡이>가 된 것이다. 어찌보면 강영우 박사가 있기까지 그녀(석은옥 : 아름답고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그가 지어준 이름)가 없었다면, 그녀가 그의 눈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평범한 맹인 안마사가 되었을거라고 그는 고백한다. 나는 지금도 그녀가 신비롭기만 하고 그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되지 않는다. 진정 사랑의 위대함인가. 그녀의 도움으로 연세대학교 교육과에 입학하게 되고 1972 년 문과대학을 차석으로 졸업하게

된다. 당시 군부정권 시절 장애인은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법이 있었는데 각방의 노력 끝에 장애인 최초로 국제 로타리 컬럽 장학생으로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는 세상과 작별하면서 국제로타리 재단 평화센터에 25 만불을 기증하고 모교 연세대학에도 3 억원을 기증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물론 한국의 맹인 최초 박사가 된것이다. 이 시절에 길을 방향하던 그에게 차를 태워준 인연이 된 사람이 향후 법무장관이 되고 그가 다시 부시정부에 추천을 하여 국가 장애 위원회 차관보까지 오르게 된다. 이민 초기시절에 생활을 위해 그로서리 가게를 하던 이야기, 장애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설움과 보람등, 그의 저서는 구구절절이 한편의 드라마다. 실제로 강영우 박사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은 그를 소재로 한 한국의 TV 다큐멘터리 한편이 방송되면서부터였다.

그가 여러편의 저서에서 강조하는 <인생 지침 10 계명>은 다음과 같다. : 1) 역경을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 역경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도전하는 것이 승리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다. 2). 인생의 장기적인 목적을 설정하라! - 무엇이 되어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3). 자신의 존재가치를 발견하라! - 위기를 해결해 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4). 분명한 VISION 을 가슴 속에 품어라! - VISION 은 분명할수록 성취도가 높으므로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세워라. 5). 역할모델을 가져라! - 위인 중에 역할모델을 가져라. 또한, 훗날 당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당신이 자녀의 역할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6). 세계화 시대에 알맞은 가치관을 적립하라! -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가치는 빨리 배워야한다. 7).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 소속하라! - 남은 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적아래 신앙으로 맺어진 의도적인 친구를 만들어라. 8).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 최악의 상황에도 가슴에 간직한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9).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라! - 당신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능하면 희귀한 꽃을 피워라. 10). 최선의 것을 주어라! - 공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그는 분명 자랑스런 한국인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비록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의 모리 노교수나 <마지막 강의>의 저자 랜디 포시교수와는 다른 작별 방법이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다. 떠나기전 40년이상을 함께 한 그의 아내에게 쓴 편지에는 "당신은 나의 지팡이가 돼서 나보다 항상 한 발짝씩 앞서 걸어줬다"며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감사함과 미안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고 전했다.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 쓴 편지에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너희들, 손주들과 오붓한 낮잠을 즐길 기회를 준 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며 지난날을 회고했다. 그리고 두눈을 실명함으로써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해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장애보다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과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발짝 앞서 걸어준 <하얀 지팡이>로 기억될 수 있을까?